‘저출산 쇼크’ 출산율 1.05명 사상 최저

청년 실업·집값 상승 등 영향 지난해 출생아 35만7700명

광주 1.05명·전남 1.33명 전년비 하락…혼인건수도 900건↓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작년 국내 출생아수는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추락, 35만명대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 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지난 2002년 49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15년 이상 40만명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40만명 아래로 급락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감소폭도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 해 출생아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급감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인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 못 미치는, 가장 낮은 것으로 심각한 형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12월 장래인구를 추계하면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가정한 1.07명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정점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역의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전년도(1.17명)보다 떨어졌고 전남도 1.33명으로 전년도(1.47명)에 비해 낮아졌다. 그나마 아직까지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세종(1.67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11.4%) 줄어들었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이 97.7명으로 급감, 전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초반 출산율이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감소세를 봐도 첫째아(-12.0%), 둘째아(-11.9%), 셋째아 이상(-12.4%)이 모두 두자릿수로 급감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줄었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혼인 건수는 전년(28만1600건)보다 6.1% 감소한 26만4500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7100건으로, 전년도(7500건)보다 줄었고 전남도 8600건(2016년)에서 8100건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에다, 청년실업률, 집값 상승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 출생이 모두 급감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불안과 청년실업, 경기나 주택 상황이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27.36 (-28.78)
- ⬆ 금리 (국고채 3년) 2.27% (+0.01)
- ⬇ 코스닥 857.06 (-16.95)
- ⬆ 환율 (USD) 1082.80원 (+11.50)

서광주세무서 종교인 과세 설명회 서광주세무서(서장 김정호)는 지난 27·28일 관내 종교인 및 종교단체종사자를 대상으로 2층 대회의실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서광주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관련 종사자 회계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은행 소외 아동 위한 생필품 박스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8일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아 ‘50박스의 기적’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매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지역민을 선정해 생필품 박스를 선물하는 행사로 올해 12번 진행하게 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13일 고려인마을 어린이들을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들과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지 못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광주은행은 생필품과 과자 박스를 전달했으며 추가로 학대피해 아동 가정에도 생필품을 선물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해 취업문도 ‘바늘구멍’

잡코리아 조사…500대 기업 절반이상 “계획 못세워”

대기업들의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국내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CJ그룹도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신입공채를 진행한다.

작년 3월 중순에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한 삼성그룹은 올해 정확한 채용 시기와 규모는 미정이라고 답했고 롯데그룹도 다음달말 신입 공채를 실시할 계획이나 규모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잡코리아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21개사 가운데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35.8%(115개)에 그쳤다.

상반기 신입직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41.1%(132개)에 달했고 나머지 23.1%(74개)는 아직 채용 시기와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반기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힌 81개사의 총 채용 인원은 2625명으로, 지난해 조사 당시 채용 규모(2831명)보다 7.3% 줄어들었다는 게 잡코리아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전,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협약

24개 대학 에너지신기술 등 5개 분야 3년간 300억 지원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 김시호)는 지난 28일 서울 한전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에서 전력연구원장, 경희대·명지대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사업은 전력산업분야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명지대, 경희대, 창원대, 전남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24개 대학을 대상으로 에너지신기술, 차세대전력계통, 인공지능 등 5개 분야 연구개발에 3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해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공모를 시행해 명지대, 경희대(수도권), 창원대(영남권), 전남대(호남권), 한국과학기술원(충청·강원권) 등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5개의 클러스터를 최종 선정했다.

각 클러스터는 특성화 연구 분야별로 자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을 통해 전력분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빠르게 융합되는 시대에 걸맞게 사회, 경제, 법학 등 비(非)이공계 교수가 연구에 참여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성환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사업은 기초연구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물론 기초연구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모델이다”며 “앞으로 한전은 기술과 학문의 융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 내려

예금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만 상승하며 예대 금리 차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 대출 금리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9%로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오름세를 보인 대출금리와 반대로 수신금리는 내렸다. 단기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80%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보해 천년주’

브랜드 디자인 공모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제품을 지역민과 함께 만든다.

보해양조는 오는 16일까지 ‘전라도 정도 천년 보해 기념주 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분야는 네이밍과 브랜딩 부문으로 각각 진행된다. 네이밍 부문은 보해가 만드는 정도 천년 기념주 이름을 공모전 홈페이지(www.1000y-bohae.co.kr)에 접수하면 된다. 전국 일반인과 대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100만원 등 총 24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16일로 결과는 23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브랜딩 부문은 소주라벨디자인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 한정한다. 대상 1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보해양조 입사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총 상금은 790만원이다. 오는 16일까지 마감이며 당선작은 22일 발표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대행사 바비샤인(062-942-1012)으로 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